

김용민브리핑

2016년 11월 19일 토요일

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

홈페이지 <http://www.podbbang.com/ch/9938>
 전자우편 kimyongminpd@gmail.com
 텔레그램 <https://telegram.me/kimyongmin>

60일의 건강보험증	02-766-1004
아름다운재단	www.beautifulfund.org
전통방식 숙성! 최고의 맛은	1599-6456, 010-9384-7970
알싸한홍어	alssahan.co.kr
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	041-754-0884, 010-9754-6972
정성농장홍삼	jeongseongfarm.com
안티요요! 다이어트 쇼핑몰은	031-783-6007
비타샵	vitashop.co.kr
예쁜 구멍이 쏠! 장 청소는	070-4115-0365, 010-2892-0365
미궁장사랑	jangsarang.com
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	1688-9113, 031-717-1613
수아비스화장품	www.suavisslab.com
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	031-902-9292
풍무양고기	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즈프리카 2층
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	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
매트리스옴	www.mattressm.com
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	032-519-4800
내피알	nepr.co.kr
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!	facebook.com/tartfarm13
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	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
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	1544-4586
이담채김치	edamche.com
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	010-5633-6036
메이드바이어스	madebyus.co.kr
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!	070-8635-1288
전창걸의새싹땅콩차	전창걸.com
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	1566-0263
좋은사람과플라워	flowergood.co.kr
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	02-849-9730
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	cafe.daum.net/7000kim
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	010-2443-0818
와우전복	wowabalone.modoo.at
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	010-7252-1114, 031-989-9968
연지연곰탕	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-5

아이들에게
 핵없는 세상을!



아세요?

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
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
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-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
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,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
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

우리나라라는 걸요!
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
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



대통령제 숨통 끊는 박근혜

김용민 /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

로고폴리스에서 나온 '지금 다시, 헌법'이란 책을 읽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제를 도입했는지 소개한 부분이 주목 됐는데요. 1948년 대한민국 헌법 '초안'에 박힌 이 나라의 권 력구조는 내각책임제였습니다. 내각제는, 1960년부터 약 1년 동 안 실험한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관장하는 형 태라 하겠습니까.

혼란은 다소 있을 지언 정, 독재 방지에 있어서만은 가장 이상 적인 권력구조입니다. 그러면 그 1년을 뺀 나머지 기간의 대한 민국 권력 구조는 왜 대통령제로 요지부동이였을까. 출발점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몽니가 있었습니다. 이승만은 '미국 같 은 대통령제'를 하자고 우겼습니다. '미국 같은 대통령제'는 미 국만 하고 있고, 나머지 나라에서 무차별 도입할 때에는 쿠데타 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뜻있는 정치인, 학자들은 만류했습니다. 하지만 이승만은 요지부동이였습니다. 결국 그 노인네 한 명의 고집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제로 헌법의 기초를 닦게 됐습니다. '각하' 보다는 '박사' 라는 호칭을 더 선호할 만큼 극강의 엘리트 의식으로 다져진 이승만 아남니까? 그가 군주제와는 다르지만 군주만큼의 힘을 보장한 대통령제에 주목한 이유, 짐작하고도 남습니다.

그렇게 국민주권을 허울로만 알았던 이승만은 4.19 혁명으로 쫓 겨납니다. 그리고 이듬해 40대 군인 박정희는 국민 권력을 찬탈 합니다. 그리고 독재를 하기 위해 곧장 대통령제로 환원했고요. 부하의 총탄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 광포한 힘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 다.

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점과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쁜 대통령을 만나면 그 자체로 흥기가 되는 것이 대통령제입니 다.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지도자, 이제 정리하자는 100만 넘는 현장의 민의조차 수렴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말마다 국민의 원성 을 보여줘야 하는 이 국체가 참으로 가련합니다.

어제 계엄선포설이 돌았습니다. 나이가 친위쿠데타를 염려하는 시각도 상당합니다.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중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. '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' 라는 말, 법전에 만 있는 '허울' 이 아닌 '실질' 이 되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.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촛불 동참합니다.

오 | 늘 | 의 | 김 | 용 | 민 | 브 | 리 | 핑

■ 1119토① | "박근혜 퇴진" 89%... '사이 박근혜'는 없다
 [오프닝] 절대다수 '국민 원성' 반영 못하는 대통령제의 한계
 [김용민의 조간브리핑]

- 한국일보 2000명 긴급 조사 "하야" 73.1%, "탄핵" 19.8 %
- '사이 박근혜' 있다는 청와대 망상·한국갤럽 "많아야 10% ㅋ"
- 안중범 실토로 박근혜 '롯데 70억 수수' 공범된다
- '종질' 된 정유라, 한 때 최순실에 "대학도 안 나온 게" 폭언
- 새누리 출신 이상돈 "계엄령 발동? 군인들 시민 편에 설 것"
- [최동석 칼럼]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
- 시민혁명과 국가조직 설계원칙
- [김프로이드] 김프로 전 SBS 기자, 팟캐스트 제작자
- 검찰, 박근혜와 확실히 등돌렸나? 에헤~ 그럴 리가

■ 1119토② | [관훈나이트클럽] 자업자득 MBC...역할 일 없다
 [출연] 민동기 미디어평론가,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
 -"MBC 로고 떼고 집회 생중계, 쪽팔려서 눈물이 났다"
 -김영한 비망록이 밝힌 청와대의 KBS 장악 기도
 -'낮 뜨거운 동아일보의 북한 세습 비판'

